

◆교회목표◆
신령한 예배
친국립군 양성
민족 복음화
세계 선교
아웃 사랑

주간충헌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시편 18:1)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니라
(골로새서 1:21)

발행처: 대한예수교장로회 주간충헌교회 서울시 강남구 역삼동 665-1 ☎ 552-8200 팩스 563-3932

THE WEEKLY CHOONG HYUN

발행인: 김성관 편집인: 노광원 편집국장: 조순근

목사·장로 기도회 사랑과 믿음으로 잡은 기도의 손

지난 3월 1일 충헌기도원에서는 '99 충헌 목사·장로 기도회가 열렸다.

3·1절 휴일을 맞아 가진 급변 기도회는 교회 지도자 모두가 교회를 향한 일치된 열심과 사랑을 다지고, 영적 일치와 바른 지도자 의식 속에서 교회를 섬길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었다.

이에, 참석한 본 교회 목사님 및 장로회 회원들은 오전 9시 30분 교회를 출발하여 기도원에 도착한 후, 계속된 프로그램에 열심히 참여하면서 예배와 특강을 통해 '신실한 복음의 일꾼으로 서야 할 명백한 이유' 및 '신구구 성경을 통해 배워야 할 바른 교회 지도자

상'을 발견하는 소중한 시간을 가졌다.

이후, 교회와 서로를 위한 뜨거운 기도 속에서는 주님의 뜻을 따라 몸된 교회를 섬기고자 하는 열정을 확인하였고, 특히 모든 참석자들이 손을 잡고 드리는 마지막 기도를 통해서도 모두가 일치된 헌신의 감동을 맛볼 수 있었다.

알겠어서 교회를 섬기는 이 일꾼들이 교회의 머리되신 예수 그리스도만을 섬기고 전할 뿐 아니라, 묵묵히 하나님의 뜻을 따라 충성되게 헌신할 수 있도록 성도들의 계속적인 기도의 동력이 기대된다.

교역자세미나 3월 8일(월)~10일(수)

교역자 양성훈련 및 세미나가 3월 8일(월)부터 10일(수)까지 강원도 설악산에서 진행된다.

우리 교회 모든 교역자들은 급변 세미나 기간 중 말씀과 기도, 강의와 교제, 그리고 각자의 사역을 소개하고 점검하는 시간들을 통해서 올 한 해의 사역을 힘있게 감당할 수 있는 힘과 지혜를 얻을 수 있기를 원하고 있다.

성도들의 깊은 관심과 기도의 지원이 있어야 하겠다.

교육훈련원 개강예배 지난 3월 2일부터 시작

5대 목표를 이루는 준비된 일꾼양성

지난 주일 개강예배를 드린 교육훈련원 산하 성경연구원, 전도훈련원, 그리고 선교훈련원의 각 수업이 지난 3월 2일(화) 성경연구원의 주간성경공부반을 출발로 하여 일제히 개강되었다.

전도훈련원은 3월 3일(수), 선교연구원은 3월 6일(토)에 각각 시작되었고, 교양강사부와 찬양대원양성부는 3월 7일(주일)부터 시작된다.

우리를 향하신 예수님의 뜻 전부가 요약되어 있는 교회 5대 목표는 막대한 열심만 가지고 되는 것이 아니라, 말씀에 대한 깊은 이해와 사랑, 그리고 기도와 훈련을 통한 준비된 헌신을 통해서 되는 것임을 알아, 성도들은 열심을 내어 본인 형편에 맞는 강좌에 등록하여 수강할 수 있어야 하겠다. (5면에 성경연구원 주간성경공부 강의 내용 소개)

찬양위원회 교회학교 지휘자·반주자 훈련

오늘 찬양예배 후, 찬양위원회실

찬양위원회(위원장 이훈 장로)는 교회학교 찬양대에서부터 영감이 넘치는 순수한 찬양이 빠르게 드러질 수 있도록 돕기 위해 오는 제1교육위원회의 산하 각 부서의 지휘자와 반주자들을 대상으로 하여 기본적인 훈련을 실시한다.

이 훈련은 찬양예배 후 찬양위원회실(본당1층)에서 진행된다.

공동의회를 소집합니다

본교회 소속 전 세례교인들은 아래의 사항을 참조하시어 공동의회에 꼭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일 시: 1999년 3월 7일(오늘) 찬양예배 후
- 장 소: 본당
- 안 건: 99년도 장로·집사·권사 선거를 위한 계획 및 당회위원안

'99 제2차 성찬식 오늘 1-5부예배시

1999년도 두번째 성찬식이 오늘 1-5부예배시에 거행된다. 지난 주일에 세례와 입교, 개종을 받은 92명의 성도들을 포함하여 온 세례교인들이 동참하게 될 성찬을 위해 예배위원회의 성찬준비위원들은 어제 오후부터 성찬 준비를 시작하여 모든 준비를 완료하였다.

성도들은 몸과 마음을 정결케 하고 그리스도와의 진정한 교제가 이루어지도록 진심어린 기도로 준비하여 참여할 수 있어야 하겠다.

교정전도회 공주교도소 특별집회

교정전도회에서는 3월 9일(화) 공주교도소 강당에서 제소자 400명 및 직인 50명, 교정전도회 가족 4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특별 전도집회를 가진다.

교정전도회에서는 집회인도를 맡은 서광진 목사 및 모든 제소자들, 그리고 참석자들을 모두에게 성령께서 역사하심으로 변화와 갱신의 은총이 임할 수 있게 기도 준비하고 있다.

남녀전도회 활성화를 위한 영성훈련

전도 운동 방향도 제시될터
14일(다음주일) 오후 3시, 갈릴리움

전도위원회의 남녀전도부(위원장 박영성 장로, 부장 이하영 장로)에서는 남녀전도회 활성화를 위한 영성훈련을 아래와 같이 실시하기로 하였다.

이 영성훈련에서는 그동안 많이 논의되어온 '전도하는 전도회'로의 변화를 모색하는 전도 운동 방향도 제시되고 전교인 전도 운동에 대한 기본적인 방향도 논의될 것이다.

전도위원회는 이번 기회를 통해 전도하는 전도회, 전도하는 교회로서의 사명을 새롭게 하고 실재화되는 기회가 되기를 바라고 있다.

- 일 시: 3월 14일(다음주일) 15:00
- 장 소: 갈릴리움
- 대 상: 남녀전도부 각 지회 회장, 부회장, 전도부장, 전도부차장, 전도위원회 임직원



김창인 목사

위로의 음성 (이사야 40:1-2)

“하나님은 죄를 범하지 않은 의인을 위로하십니다. 또한 죄를 범하고 매투고 여러 가지로 어려움을 당할 때에 반역하지 않고 가슴을 치면서 회개하고 바로 살기로 결심하는 자를 하나님은 상처를 이루만저 치료해 주면서 위로하십니다.”

이사야 40장 1-2절에는 하나님의 위로의 음성이 나타납니다. 죄없이로 망하여 바벨론에 포로로 잡혀 갔던 유다 백성이 회개하여 하나님의 위로를 받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올 것에 대한 예언입니다. 이사야는 유다가 망하기 약 170여년 전의 선지자로써 170여년 후에 예루살렘이 망할 것을 내다보았고 그 후 본국으로 돌아올 것까지 예언하였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기쁘신 뜻대로 계획하시고 그대로 창조하시고 섭리하여 실천하시는 본으로 당신의 종들의 입을 통하여 장래에 될 일들을 예언하십니다. 이런 하나님께 우리의 말씀을 유다 민족에게 주셨습니까?

“나히 하나님이 가라사대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1절)

사람은 누구를 막론하고 위로를 받아야 합니다. 힘이 없는 인생이 약자가 살기라고 말리는데는 험악한 세상에서 살려면 위로해 줄 자가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믿지 않는 사람들은 여러 곳에서 위로를 구합니다. 그런데 뭇 왕에 인간을 위로한 자가 어디에 있습니까? 사람이 사람을 위로하는 것은 어느 정도는 가능하지만 전적으로 위로할 수는 없습니다. 오히려 위로는 뭇분을 내세워 곤경에 처한 사람을 이용해 먹는 사람들과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에게 위로를 구하는 자는 낙심하여 툭툭 날이 있고 나누나 바위를 향하여 위로를 달라고 하는 자는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악독해집니다 마지막에는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를 위로하실 분은 누구입니까?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슬픔과 문제가 있는 인생을 향하여 오라고 하십니다. 하나님만이 우리를 위로하실 수 있습니다.

1. 위로자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1) 사람이 풍성하신 분이십니다

첫째로, 하나님의 사랑은 뜨겁습니다. 위로자는 사람이 뜨거워서 모든 면에서 회개할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사람이 없이 남을 위로한다는 것은 형식이거나 다른 속성이 있어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여 만물을 주시고 우리를 범죄하였을 때에 독생자까지 주셨습니다.

둘째로, 하나님의 사랑은 깨끗합니다. 위로자의 사랑은 깨끗해져 있지 않습니다. 깨끗하지 못한 사랑은 오히려 함정이 되기 때문입니다.

셋째로, 하나님의 사랑은 변하지 않습니다. 위로자의 사랑은 변하지 않아야 합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독생자까지 주시는 뜨거운 사랑, 때로는 아니한

깨끗한 사랑, 영원히 변함이 없으신 사랑으로 우리를 위로하십니다.

(2) 지혜가 풍성하신 분이십니다

위로자는 지혜가 있어야 합니다. 내가 병든 자나 가난한 자나 환란을 만난 자들을 위로할 마음을 가졌어도 지혜가 모자라면 위로한다는 열심이 도리어 피해를 끼치는 때가 많습니다.

그러므로 위로하는 자는 지혜가 있어야 하는데 특별한 지혜가 있어야 합니다. 첫째로, 사람의 사정을 알아 주는 지혜가 있어야 합니다. 둘째로, 위로하려는 사람의 환경을 아는 지혜가 있어야 합니다. 위로하려는 사람의 주위에서 부딪치는 여러 가지 문제들을 아는 지혜가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인간은 남의 사정을 아는 자는 별로 없습니다. 남의 사정을 알아 주는 사람이 참으로 좋은 사람인데 이런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다만 하나님만 내 사정을 아시고 내 주위의 사정을 아시고 내 원수인 악마의 계획까지 아십니다.

이렇게 온전히 지혜로우신 하나님만이 나를 위로하실 수 있습니다.

(3) 권세와 능력이 풍성하신 분이십니다

위로자는 권세와 능력이 있어야 합니다. 아무리 사랑할 마음과 지혜가 있어도 권세와 능력이 모자라면 제대로 위로하지 못합니다. 사랑할 마음이 있어서 병든 사람을 병원에 입원시켰습니다. 사람이 너무 뜨거워서 ‘내가 대신 아프고 이 사람이 아픈 줄’ 알고 대신 아파고 줄 때까지 있습니다. 그래도 병을 고쳐 줄 만한 실력이 없는 자는 위로하지 못합니다.

인간은 실력이 모자라서 마귀와 싸워 이길 힘이 없고 병들고 싸워 이길 힘이 없습니다. 전쟁을 해야 할 힘이 없습니다. 죽음과 싸워 이길 힘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해결하실 수 있는 권능이 있습니다. 권세 능력 무한하신 하나님만이 인간을 위로하실 분이십니다.

(4) 재물이 넉넉하신 분이십니다

위로자는 재물이 넉넉해야 합니다. 재물이 없는 사람은 남을 위로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하늘의 좋은 것과 땅의 좋은 것을 다 가지신 하나님께서 ‘내가 좀 주어야 되겠다’ 하시면서 결재에 도착한 편이 주시면 어느 창고문을 열어서라도 주십니다. 이처럼 재물이 있어야 위로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을 갖추셨기 때문에 우리를 위로하십니다. 만물과 독생자까지 주시는 뜨거운 사랑, 때로는 깨끗한 사랑, 영원히 변하지 않는 진리의 사랑을 가지고도 우리의 사정을 아시고 관세 능력이 무한하신 하나님

만은 재산을 가지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로하여 주십니다.

2. 누가 하나님의 위로를 받을 수 있습니까

(1) 하나님의 백성이 된 사람이 아니라 위로를 받습니다

“... 내 백성을 위로하라”(1절)
“내 백성”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포로가 되었을지라도 이스라엘이 여호와와 백성임을 확인시켜 주는 말씀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께의 위로를 받을 수 있습니다.

(2) 죄를 용서받은 사람이 아니라 위로를 받습니다

“너희는 정다히 예루살렘에 말하며 그에게 외쳐 고하라 그 복역의 때가 끝났고 그 죄악의 사함을 입었느니라 그 모든 죄를 인하여 여호와와 손에서 떠나 받았느니라 할지니라”(2절)

“그 복역의 때”는 바벨론 포로생활을 가리킵니다. 이런 생활은 근본적으로 죄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므로 포로생활이 끝나는 것은 죄를 용서받은 것임이다. 이와 같이 죄를 용서받은 사람이 위로를 받습니다.

사람이 죄를 범하면 하나님은 양심을 통하여 책망하십니다. 여러분의 가슴속에 있는 양심은 여러분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사람을 심판하시기 위하여 출장 보낸 재판장입니다. 양심이 내 것이 아니라 내가 무슨 것을 하여도 내 편을 들어야 하는데 양심은 내 마음에 있기는 하지만 내 편이 아니고 하나님이 보내신 재판장입니다.

그러므로 양심은 내가 잘못하면 사정없이 책망을 합니다. “나, 그래서야 되겠느냐?” 양심의 책망을 받고도 고치지 않으면 사람에게 책망을 받는 날이 옵니다. 사람의 부도덕한 사랑의 권면을 거절하면 사람이 강제로 감옥에 가두어 놓고 때리는 정계를 당하는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누구를 위로하십니까? 죄를 범하지 않은 의인을 위로하시고 한결을 더 나아가서 죄를 많이 범하고 매투고 여러 가지로 어려움을 당할 때에 반역하지 않고 가슴을 치면서 회개하고 바로 살기로 결심하는 자를 하나님은 상처를 이루만저 치료해 주면서 위로하십니다.

사람이 죄를 범하는 것은 물론 나쁩니다. 그러나 죄를 범하는 것을 보다 더 나쁜 것은 죄를 회개하지 않고 핑계하는 것입니다. 이보다 더 나쁜 것은 죄를 다른 사람에게 뒤집어 씌우는 것입니다. 이것이 가장 무서운 죄입니다. 하나님께 매투고 회개하면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다른 사람을 저주하면 하나님의 위로를 받지 못합니다. 매투고 회개해도 겸손히 “하나님, 때려 주시니 고맙습니다” 매투고 회개하고 바로 살기로 결심하면 하나님은 위로의 손길을 펴시고 치료해 주시고 또한 잃어버렸던 것을 배나 주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위로입니다.

(3) 의를 행하면서 억울함을 견디는 자라 위로를 받습니다

위로를 받는데도 억울함을 당하고 아무 잘못이 없는데도 욕을 먹는 경우를 겪어 보셨습니까. 요셉은 아무 죄가 없는데도 형들이 팔아 애굽에 가서 종이 되었고, 보디발의 아내가 죄를 범하고 욕을 먹는 것을 거절하였다 억울하게 감옥에 갇혔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의를 지키고 억울하게 복을 주셨는데 30배, 60배, 100배의 복을 주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위로하시는 방법입니다.

한 가지 무서운 말씀을 하겠습니까. 하나님이 위로하여 주시려고 권면하시고 책망하시는데도 끝까지 거역하는 자는 마지막에 진노를 받아 지옥에 떨어지게 됩니다.

하나님의 위로를 받지 못하는 사람은 땅에서부터 지옥 생활을 하다가 세상을 떠난 뒤에 가서 계속하여 하나님의 진노를 받게 됩니다. 그러므로 죄와 어러분은 하나님의 위로를 꼭 받아야 합니다. 자신이 약한 줄을 알고 “전능하신 아버지, 죄를 불쌍히 주옵소서” 기도하셔서 죄를 회개하고 바로 살기로 결심하고 억울함을 당하여도 의를 지키면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지 않으십니다.

3.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바로 살아서 매투고 회개하여 위로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다른 사람이야 무엇을 하든지 자신의 책임을 다하시기 바랍니다. “아무개도 그러해 내가 무엇 때문에 이 것을 해?” 이런 자에게는 하나님의 위료가 없습니다. “형은 나를 팔아 먹었으니 나는 형님들과 형님들의 자식들까지 먹이리다”라고 한 요셉은 반박받았습니다. 세상은 무엇이라고 하든지 나는 하나님 앞에서 나의 할 일을 하리라 하고 충성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30배, 60배, 100배의 위로를 주십니다.

우리는 앞으로 매투고 회개하고 위로를 받고 하나님의 사랑을 입으십시오. 30배, 60배, 100배로 성령의 은혜를 입어 마음의 천국을 이루면서 영육이 복을 받게 되기를 원합니다.



김성권 목사

가장 가치 있는 사람

(사도행전 4:13-14)

“저희가 베드로와 요한이 기탄 없이 말함을 보고 그 본래 학문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가 이상히 여기며 또 그 전에 예수와 함께 있던 줄도 알고 또 병 나은 사람이 그들과 함께 있는 것을 보고 힐난할 말이 없는지라”

놀라운 무명인들

오늘 본문 13절을 보십시오. “저희가 베드로와 요한이 기탄 없이 말함을 보고 그 본래 학문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가 이상히 여기며 또 그 전에 예수와 함께 있던 줄도 알고”, 여기에서 “저희들”이란 누구를 가리킵니까? 4장 6절에 따르면 그들은 이스라엘의 가장 중요한 종교 지도자들입니다. 이 저명한 사람들이 지금 베드로와 요한을 보면서 놀라고 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인간적으로 볼 때 많은 사람을 앞에서 이야기를 할 만한 지식인이 아니었습니다. 그저 평범한 촌부요 어부에 불과했습니다. 당대의 어부들이란 교육과는 거리가 먼 사람들이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의 이러한 형편에 대해서는 종교 지도자들도 잘 알고 있었었습니다. 따라서 베드로와 요한을 무시하고자하는 마음을 가진 종교 지도자들이 이들의 담대한 설교를 듣고서 놀란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이었습니다.

“또 병 나은 사람이 그들과 함께 있는 것을 보고 힐난할 말이 없는지라.” (14 절) 종교 지도자들은 앞은땀이었던 자가 일어나 뛰는 기적을 보고는 놀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 기적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루어졌다는 사실로 인해 그들의 놀라움을 두터움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들의 놀은 명성과 지식도 명백하게 드러난 하나님의 역사 앞에서는 아무런 힘이 될 수 없었습니다. 지식으로 가득한 유망한 종교 지도자들이 무식한 무명의 어부들로 인해 이스라엘 백성 앞에서 존호를 입을 다물 수밖에 없었습니다.

세상이 감당치 못한 어부들

교육의 기회에서 소외되었던 베드로와 요한, 이 평범하기 그지 없는 두 어부가 예루살렘에서 일으키기 시작한 변화는 실로 놀라웠습니다. 이들로 인해 종교에 대한 이해는 완전히 새로워졌습니다. 형식과 외식을 부수고 신앙의 중심에 있는 가장 중요한 것을 수많은 사람들에게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보잘 것 없는 두 사람이 예루살렘과 온 세상을 변화시킬 것이라 생각한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이 세상을 뒤쫓는 주역이 되었습니다. 그들의 설교를 통해 하루에 오천 명, 그리고 또 다른 날은 삼천 명이나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주라고 고백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종교의 대변인이 시작된 것입니다. 이들은 바리새도 메시아를 세상에 선포하는 영광스러운 첫 도구가 되었습니다.

인간적 연약함을 넘어서

이스라엘은 오랜 세월을 거치면서 메시아를 기다려 왔습니다. 그러나 정작 메시아가 오셨지만, 메시아의 오심을 백성들에게 선포해야 할 대제사장들은 자신들의 교만과 무지로 인해 그들의 구조를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따라서 그 기회는 오히려 배후지 못한 두 어부에게 넘어갔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대제사장들과는 달리 세상적인, 그리고 종교적인 권위를 가진 자들이 아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들은 매우 소심하고 겁이 많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가고, 계집 종의 추궁을 두려워하여 세번씩이나 예수님을 부인한 자였습니다. 그러나 이제 권세가 막강한 종교 지도자들 앞에서 담대하게 예수님이 메시

전공한 사람들은 많으나 사람의 근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문제가 있다는 것은 알지만 예수님을 알지 못하기에 답을 얻지 못했던 제사장들과 너무나도 흡사한 현대인들의 모습입니다.

무식했던 베드로와 요한이 그토록 능력있는 설교를 할 수 있었던 이유는 그들이 예수님과 함께 있었을 뿐 아니라,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하고 하나님의 구원이 예수님 안에서 이루어진 것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와 요한에 살아 계시게 했습니다. 하나님은 자기를 부인하고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에게 능력을 주십니다.

생명의 말씀을 이해한 그들

둘째로, 베드로와 요한은 생명의 말

예수님과 동행하십시오.

여러분의 마음 속에 그분의 말씀이 들려지게 하시고,

머물게 하십시오. 그리고 구원의 기쁜 소식을

다른 사람들에게 선포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은

그의 나라를 확장시키는 거룩한 일에 여러분을

사용하실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 세상에서

가장 가치 있는 인물이 될 것입니다.

아이심을 증거하는 모습을 보십시오. 이들은 어느새 저명한 대제사장들보다도 능력 있고 중요한 사람이 된 것입니다.

예수님과 함께했던 그들

이런 일이 어떻게 가능했습니까? 세가지의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로, 베드로와 요한은 예수님과 함께 있었습니 다. 이 세상이 진실로 필요로 하는 사람은 예수님과 함께하는 사람들입니다. 세상적 지식이 높은 사람들은 많지만 주되신 예수님을 진심으로 아는 사람,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사람은 그리 많지 않습니다. 정치 이야기가 나오면 입에 침이 마르도록 많은 말을 하지만, 하나님의 나라에 관하여는 묵묵부답입니다. 신학을 연구하는 많은 박사들이 있지만 진실로 하나님의 뜻을 아는 사람은 극소수입니다. 심리학을

숨을 이해하고 있었습니 다. 그들은 많은 책을 읽지는 못했지만 하나님의 말씀만큼은 생생하고같이 귀하게 여겼기 때문이었습니다. 우리가 만약 성경말씀을 제쳐둔 채 세상적 지식만 쌓아간다면 우리의 영혼은 메달라버리고 말 것입니다. 온갖 정보와 지식을 쌓아간다면 서도 멸망으로 치닫고 있는 이 세상을 버려보십시오. 세상에 지식이 쌓일수록 오히려 환경은 더욱 위태해지고 있습니다. 컴퓨터는 유용성을 넘어서 위험한 무기와 엄청난 장애물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뒤흔들고 밀어붙이고 지식과 기술, 세상적 부에 마음을 빼앗긴 세상, 이 폭 악아야 할 사실은 한 권의 책, 곧 하나님의 말씀이 모든 것을 말해 준다.는 명백한 진리입니다! 성경은 인간 역사의 어제와 오늘과 미래를 말해 줍니다. 성경은 애련동산의 사건을 통해 죄의 근본을 말합니다. 바벨탑 사건을 통

해 타락한 인간의 교만을 말합니다. 그리고 온 우주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죄인된 인간, 보잘 것 없는 우리와 어떤 관계를 맺고 계신지를 말해 줍니다. 그리고 성경은 우리에게 임하신 생명의 말씀이 곧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선포하면서 우리에게 예수님에 대한 완전하고도 확고한 믿음을 가지도록 가르칩니다.

확신에 찬 그들

마지막으로, 베드로와 요한은 성경에 대하여 잘 알고 있었을 뿐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임한 구원과 미래의 소망에 대하여 확신했습니다. 이 구원의 확신은 연구를 통해서 얻어진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과 그의 개인적인 관계, 진정한 믿음을 통해 얻게 되는 것으로, 세상의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것입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명예와 자존심을 구하는 대신 지아야 할 십자가를 감당함으로 예수 그리스도도의 구원을 세상에 나타냈습니다. 그리고 죽음의 위험 앞에서도 구원의 확신을 놓치지 않았습니 다.

노아를 생각해 봅시다. 그는 이웃의 조롱을 참으며 100년간이나 방주를 지어놓았습니다. 노아는 온갖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자신에게 허락된 구원을 결코 포기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가장 가치있는 사람이 되십시오

베드로와 요한은 온 백성들에게 어떻게 해야 하라는 열 전국에 갈 수 있는지에 대해서 설교했습니다. 그들은 정열적이면서도 강하게 구원을 가르쳤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서 중요한 사람이 되고 싶으십니까? 어떻게 해야 하나 앞에서 가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는지를 알고 계십니까? 예수님과 동행하십시오. 여러분의 마음 속에 그분의 말씀이 들려지게 하시고, 머물게 하십시오. 그리고 구원의 기쁜 소식을 다른 사람들에게 선포하십시오. 베드로와 요한은 예수님과 함께 있었기에,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의 마음 속에 살아 있었기에, 구원의 확신이 있었기에 하나님 앞에 크게 쓰임을 받아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보다 여러분을 사용하셔서 이 세상을 변화시키시기를 원하십니다. 만약 여러분이 예수님과 동행하시고 생명의 말씀을 깨닫고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계시다면 하나님은 그의 나라를 확장시키는 거룩한 일에 여러분을 사용하실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 세상에서 가장 가치 있는 인물이 될 것입니다. 아멘. ■

선교

스리랑카 단기선교를 다녀와서 순수한 마음으로 복음을 접했던 그들

신 지 수(대학부 3학년)

우리 팀이 스리랑카에 도착하여 사역을 시작한 날이 1년중 가장 기운이 서늘한 때라는 말이 무색할 정도로 아침부터 밤이 흐르는 날새 가운데 또 다른 양육팀, 심방팀, 담사팀을 보내고 우리 팀의 본격적인 양육 사역이 시작되었다. 접마다 비치되어 있는 불



상과 부처 그림을 뒤로 하고 우리는 뿌리안떼에 가족들과 모두 모여 예배를 드렸다. 예수님 얘기를 천주교 듣는다는 가족들을 기독교는 천주교와 다른 것이며 마리아에게는 절대로 구원이 없다고 믿었고 예수님이 어려분과 스리랑카를 나누어 사랑하신 고로 우리는 그 명령을 받고 왔다고 전했다. 뿌리안떼 가족은 언니 6명과 남동생 1명인데 넓은 응접실을 가득 채우고 우리만을 보고 있던 그들에게 우리가 주님을 전하는 순간은 참으로 떨리고 긴장되었다.

이들이 우리의 말을 재미있는 얘기를 들으며 흘러 보내지는 양을, 우리가 어떻게 할 수는 없지만 정말 이 집에 주님이 역사하셨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며 나는 15살 이하의 아이들을 모아 노아의 방주에 대해 전했다 들은 것을 그림으로 표현하는 시간을 가졌다. 그리고 이후부 생선남은 뿌리안떼의 언니들을 모두 모아 놓고 성경공부를 했다. 생애 처음으로 복음을 접한 그들은 절대로 한 순간도 놓치지 않으려고 했고 우리는 밤 11시까지 성경공부를 진행할 정도였다.

다음날 이후부 생선남은 결국 입속에 무언가 생기기 아무것도 먹지 못하고 물만 넘기듯 눈물이 날 정도로 심해졌다. 설상가상으로 통역을 해주지 는

산타까지 목감기가 악화되어 기침만 하고 목소리가 나지 않았다. 하지만 우리들은 멈출 수가 없었다. 그들이 더욱 갈급한 심정으로 성경공부를 하길 원했기 때문이었다. 정말 신기하다고 말할 수 없는 순간이었다. '이것이 주님의 뜻이구나'라고 생각하며 우리는 묵묵히 해 나갈 수 있었다.

가족들의 성경공부를 마치고 아픈 니산타와 말도 잘 안 통하는 맥시(우리나라에 있다가 귀국한 친구)를 알아보고 또다시 Bible note 하는 법을 배우는 시간을 새벽 1시까지 가졌다.

감사하게도 다음날 이후부 생선남의 입병은 아주 빠르게 나았고 다시 힘차게 아이들을 앉혀놓고 폭죽 쏘는 방에서도 감사하는 마음으로 성경공부를 했다. 아이들은 부모님이 단지 불교신자라는 이유로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따라왔던 과거에서 벗어나 이제 주님을 믿고 교회에 나가겠다고 굳게 결심했다. 마지막 예배에도 오직 예수만이 구원자임을 전하며 기리발고데에서의 사역을 접었다.

한국에 온 후에 걱정되는 것은 그들이 주님을 믿었다고 한 후에 다칠 시련을 그들이 어떻게 잘 이겨나갈지, 혹시라도 다시 불교신자가 되는 것은 아닌지 하는 것이다.

주님이 허락하신 덕분에 어린이와 같이 순수한 마음으로 복음을 받아들인 그들을 만나게 해 주셔서 감사드렸고 이것으로 끝이 아니라 이제 계속 그들의 영혼을 위하여 기도하는 숙제가 내게 남아 있음을 알게 되었다.

방글라데시 단기선교를 다녀와서

'이제부터 시작이야'

정 성 민(대학부)

9일간의 짧은 기간이었지만 방글라데시를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참 많은 것을 보여 주셨다. 솔직히 가기 전에는 이번 단기선교가 나에게 '마지막'이라고 생각하였다. 작년에 단기선교를 준비하다가 가지 못하였기 때문에 이번 방글라데시는 반드시 가야겠다고 다짐하였다. 그 이유는 내년이 되면 대학부에서 많은 일들도 많고, 공부해야 할 것도 많아지기 때문에 더 이상 시간이 없을 것이라는 인간적인 계산이 자리잡고 있었던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은 방글라데시에서 나의 생각들을 여지없이 깨버리셨다. 마치 막이라는 생각에서 '이제부터 시작이구나'라는 마음으로 둘러놓은 것이다.

계속해서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통해 내가 가진 갖다온 후의 생각을 바꿔 놓으셨다. 방글라데시 하면

세계에서 제일 가난한 나라이기 때문에 선교에 비전이 있다고 생각했었다. 그래서 우리 팀이 그곳에서 물이 안나오는 시골지역을 다니며 우물을 파주고 선물이나 조식호를 전달하는 것이 복음이 되는 줄 알았다. 그러나 비행기 안에서 읽은 말씀을 통해서 주님은 복음이 정말 무엇인지 가르쳐 주셨다. 먼저 이 사야 46장 말씀을 통해서 들려 주신 것은 복음은 우리의 봉사와 생명을 통해서가 아니라 구원을 베푸시는 복은 오직 예호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확인할 수 있었다. 그렇기! 방글라데시인들이 구제가 필요하기 때문이 아

니라, 이들이 예수를 모르기 때문에 이 나라에 복음을 전해야 한다는 것을 깨닫고 오직 영혼 구원에 대한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는 말씀을 듣게 되었다. 비행기 안에서 읽은 시편 37, 39편의 말씀을 통해서 '여호와를 기뻐하면 네 소원을 이루시고 저를 의지하면 이루시고 네 의를 밭같이 나타내시며 네 공의를 밭같이 하신다'는 약속 앞에서 잠잠하고 참아 기다리라는 말씀을 주셨다. 나는 넘어질 수밖에 없지만 아무도 알려지지 않아야 하는 여호와께서 붙드신다는 음성



을 통해 위로와 도전의 격려를 받을 수 있었다. 방글라데시 팀이 어떤 사역을 했는지 사역 내용을 나누고 기도 싶어서 무엇 보다 귀한 간증은 나 자신이 정말 언약한 존재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

선교지에 가면 더 잘할 수 있는 줄 알았다. 그러나 한국에 있는 모습이나 그 땅 가운데서의 나의 모습이었다. 선교지에 가면 무엇인가 할 수 있고, 지금과는 달라질 것이라 생각은 하였지만 한국에서 부족한 모습을 방글라데시에서도 동일하게 부족한 모습이었다. 참으로 나의 약함을 바라볼 수 있었던 사역이었다.

계속해서 단기선교에 온유함과 애정 어린 눈빛으로 관심 가져 주시길 드리며 그동안 방글라데시 팀을 위하여 기도해 주신 성도님들에 감사드립니다.

이웃사랑

충원복지관에서는 아동·성인뿐만 아니라 정신지체인 청소년과 일반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있다. 크게 가정 지원 서비스, 우리누리 교실, 어우러기 프로그램으로 나눌 수 있는데 어떠한 프로그램들이 살펴보기로 하자.

가정 지원 서비스

강남구 내에 거주하고 있는 정신지체인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하는 프로그램이다. 자원봉사자를 매 주만 가정에서 일대일로 파견하여 지적약의 공공시설 이용(체육, 외출 등), 여가 활동(영화 관람, 수영, 취미 교실 등) 등과 같은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한다. 자원봉사자들은 주로 봉사 활동을 하기 원하나 평일에 시간을 내기 어려운 직장인들로서, 한 달에 한번씩 복지에 다녀오며 정기적으로 정신지체인들을 돕는 데 필요한 교육 및 상담을 받는다.

우리누리 교실

우리누리 교실은 연 2회 여름과 겨울방학 중 정신지체인 청소년과 일반 청소년들이 짝을 이루어 함께 진행하는 프로그램이다. 자연 학습, 집단 활동, 캠프 등

충원복지관 청소년을 위한 프로그램



충원복지관에서는 정신지체인들과 일반인들이 더불어 살아가는 지혜를 터득할 수 있도록 가정 지원 서비스, 우리누리 교실, 어우러기 교실과 같은 여러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다. 시선은 가정 지원 서비스를 통해 만난 정신지체인과 자원봉사자가 함께 모습.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정신지체인 청소년들에게는 학교 활동 외에 여러 가지 다양한 경험과 사회 통합의 기회를 제공하고, 일반 청소년들에게는 자원봉사의 기

회를 통해 장애인과 함께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는 뜻깊은 프로그램이다. 이러한 프로그램을 통해 일반 청소년 자원봉사자들이 장애인에 대한 편견을 버리고 함께 다지고 호흡하며 성장할 수 있다.

다음은 정신지체인 청소년과 함께 캠프를 다녀온 자원봉사 학생의 글 중 한 구절이다.

“... 이번 캠프를 통해 확실하게 느낀 것은 정신인도 장애인도 못하는 일과 잘하는 일이 한두 가지씩은 있다는 것입니다. 다만 결정적인 차이가 있다면 그것은 정신인은 장애인들 동정의 눈으로 바라보지만, 장애인들은 정상인들 같은 인간의 한 사람으로 바라본다는 사실입니다.”

어우러기 교실

어우러기 교실은 학교에서 봉사 명령을 받은 중·고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복지와 봉사 활동 및 지역 봉사, 상담 및 집단 활동, 역할극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이들이 긍정적인 자아 의식과 타인성을 기르고 장애인에 대한 인식 개선을 통해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한정혜 기자)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목사·정로 기도회

“예수님만으로 충분한
지도자가 되게 하소서”새봄의 파스합이 가득했던 기도원에서의 하루
우리의 다음 세대에겐 순전한 복음을 전해야 할 사명 확인

삼월 일일 아침. 아직 남아 있는 쌀쌀한 기운에 몸이 절로 움츠러 들었습니다. 일찌감치 기도원에 도착하신 위임목사님을 비롯, 대부분의 목사님, 장로님들의 얼굴에는 월요일 아침의 피곤기가 채 가시지 않았으나, 모두가 따뜻한 미소와 평강어린 악수로 서로를 환영했습니다. 그리고 예배와 특강, 식탁의 교제와 기도 가운데 새봄의 파스합이 가득한 한나절이 쏙 지나갔습니다. 비교적 길지 않았으나 영육의 충족감이 가득한 시간이었습니다.

위임목사님은 유다사 17절 이하의 말씀을 통하여 마지막 때에 세속의 가치와 영적 진실을 뒤섞어 혼탁케 하는 부류들이 일어날 것이라고 경고하면서, 교회를 섬기는 지도자들이 예 복음 안에서 순전함과 깨끗함을 지켜 행해야 하는지를 힘주어 강조하셨습니다.

윤영탁 목사님은 레갑 족속과 그 지도자 요나담을 모델로 하여, 오늘 우리들에게 꼭 필요한 지도자상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2백년 이상 지속된 신앙의 정조를 가능케 했던 그 신실한 지도력, 선배들의 신앙유산을 값있게 지켜낸 레갑 족속의 순전함이 강조되면서 참가자 모두는 신앙의 세대간 단절 현상이 가속되고 있는 우리들의 현실에서 왜 젊은이들에게 순전한 신앙의 유산을 그토

록 애써 심어 주어야 하는지를 절감하였습니다. 그리고 ‘명예와 타이틀의 군더더기를 벗어버리고 예수님만으로 충분한 지도자가 되자’는 결론적인 말씀을 마음 깊숙이 담았습니다.

박형용 목사님은 바나바와 바울, 그리고 디모데에게서 발견할 수 있는 지도자의 모습들을 구체적으로 제시하면서 시 양들을 생명으로 위한 기도를, 두번째 인도자인 김희수 목사님은 주로 장로님들을 위한 기도를 인도하였고, 마지막에는 서로의 손을 잡고 서로의 생활과 사역을 위해 간절히 간구함으로 모든 순서를 마쳤습니다.

모두는, 서로 힘껏 잡았던 손에 남은 따뜻한 감동을 잔직하고서 사진 촬영 후 버스에 몸을 실었습니다. 몸을 움츠리게 했던 아침의 쌀쌀함은 이미 다 사라지고, 따뜻한 봄 기운에 몸을 맡길 만 한 오후 서너시경 기도원을 내려갔습니다. (김경진 목사)

제1회 전국 목회자 세미나를 마치고
세상을 이긴 믿음

송 훈 장

(장로, 교육훈련원 부원장)

할렐루야! 지난 2월 22일(월)부터 24일(수)까지 3일간의 제1회 전국 목회자 세미나를 열 수 있도록 허락하시고, 또 은혜 가운데 무사히 마치고 하신 우리 주님께 영광과 찬양과 감사를 돌립니다.

지난해 12월 정기당회

서 이 계획이 결정된 후,

저는 침체 속에서 방황

하는 한국 교계에 복

음의 순수성을 회복

하는 열풍이 이 세

나를 시발점으로 전

국에 확산될 것을 기대

하고 기쁜 마음을, 그

러나 한편으로는 전혀 예측

할 수 없는 결과에 대한 두려움

으로 주님의 인도를 간구하면서 준비를

시작하였습니다.

먼저 업무별로 분과위원회를 구성,

조직하고, 계획의 재검토와 수정, 홍보,

교제 제작, 회의, 실행팀의 구성과 운

영, 그리고 기도회 등 정밀 눈 코 뜰새

없이 분주한 나날을 D-day까지 보냈습

니다. 유행에 뒤질세라 독담도 읽아가

면서 당회원들과 순 성도들의 기도와

묵상 속, 또 제가 속한 3교구 성도들

의 새벽마다의 기도 지원에 힘입어 대

개 없이 마칠 수 있었음을 지면을 통해

감사드립니다. 발송한 안내문의 상당량

우리 교회에 주신

경물을 기루어 가지는

하나님의 성령 재발된

감사들의 열의와 수감자들의 전지하고

영성적인 수감 태도가

일체의 강령군 독선적 하기도

이 반복되는 데 실망하기도 하고, 전화
로 팩스로 참가 신청하는 지방 목사님
들의 열의에 고무도 받으면서, 그야말로
희비(喜悲)가 교차하며 낙망과 기대
를 되풀이하는 나날이었습니다.

마침내 세미나 기간, 감사 목사님
들의 열의와 참석하신 목사님

들의 진지하고 열성적인
수감 태도는 아침 9시부터

저녁 9시 30분까지
의 강행군 강도의 무색

하게 하였습니다.

이번 세미나는 “하나
님이 충원교회에 주신

경물을 따라 하나님의 말

씀을 이루어 함”(골 1:25)이

거니와 제 스스로에게도 가시적

인 성과나 상황에 급급하여 세상적인

기준에 미달하면 실망하고 낙담했던 자

신을 돌아보고 회개하는 기회가 되면서

‘내게 하나님께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는나리! 세상을 이긴 이기는 이것이

니 우리의 믿음이나니라’(요일 5:4)고 확

신하게 되었습니다.

“너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님의 날까지 이루실 일을

우리가 학습’(필 1:6)하심을 이 세마

가 2회, 3회 거듭하면서 더욱 발전하기

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교육훈련원 주간성경공부 강의 내용 소개

크로소웨이 1-4권

크로소웨이 1권은 성경 전체를 한눈으로 볼 수 있도록 개관하고 있으며, 2권은 구약성경 전체를 구사적인 측면에서 다루고 있으며, 3권은 신약성경을 구사적인 측면에서 조망하고 있다. 4권은 그리스도인이 하나님의 은총으로 살아가는 삶을 그려 주고 있다.

크로소웨이 5는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역사의 흐름 속에서 하나님의 구속의 은혜를 보여 주고 있다. 그리고 순서적으로 강의를 듣지 않아도 이해하는 데 어려움이 없다. 성경 전체(1권), 구약성경(2권), 신약성경(3권), 그리스도인의 생활(4권)에 대한 내용은 독립적인 과목으로도 충분히 이해할 수 있다.

창세기

창세기는 출애굽해서 약속의 땅 가나안을 향해서 가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는 메시지와, 우주 안에 있는 모든 만물이 하나님에 의해서 창조되었음을 강조함으로써 하나님이 유일신임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기록되었다.

이사야

구약 속의 신약 이사야서! 유다 나라의 모습은 경제 적, 종교적인 풍요로움 속에 영적, 도덕적인 아픔이 깊어가는 현대 사회와 너무도 흡사하다. 유다는 주변 적국 때문에 멸망했지만 하나님은 남은 자를 보존하여 새봄에 회복하고 메시아를 통한 궁극적인 구원을 이루실 것을 예언한다.

에레미야

누ולם의 선지자 에레미야! 그는 하나님의 언약을 파하고 우상 앞에 신 동족을 향해 하나님 앞으로 돌아 오기를 누ולם로 호소한다. 그러나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은 새 언약을 유다 백성들 향해 선포하시고 놀라운 회복을 약속하셨다. 다니엘이 잃고 깨달은 여호와 의 말씀은 오늘도 우리들을 새 언약의 비서이신 그리스도께로 인도할 것이다.

다니엘

자신의 의사와는 상관없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 이방 문화의 압력과 시기, 질투하는 무리 속에서 4대에 걸쳐 총리직을 지낸 다니엘. 그는 절망과 원망의 소용돌이에 빠진 후 유대인들을 데리고, 그러나 그는 하나님의 주권적 다스림 속에서 이방의 한복판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냈다.

야모스

“하나님 만나기를 예비하라! 야모스를 통해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도 동일하게 요점하신다. 기계적인 교회생활이 자동적으로 하나님의 만물을 보장하지는 않는다. 우리는 하나님과 만나기를 소망하면서 야모스를 공부하고자 한다.

고린도후서

고린도후서는 바울의 복음에 대한 사역과 열정을 뛰어넘는 것! 고사들의 이간질 속에서 그리스도와 복음을 향한 불붙는 사랑과 헌신을 제시함으로 고

린도 교인들에게 불붙는 헌신을 촉구한다. 고린도후서를 공부하면서 우리는 바울의 가슴을 뜨겁게 한 그리스도를 만나게 될 것이다.

요한1-3장

“하나님이 빛이신다”는 것과 “하나님은 사랑이신다”는 주제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 성도와의 교제를 요청한다. 또한 이러한 진리를 무너뜨리려는 적 그리스도에 대하여 조심할 것을 강조한다. 본서를 요한복음과 요한계시록을 함께 연결하여 공부해 보기를 한다.

요한계시록

요한계시록을 수강하는 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제림과 영원한 도성 가나안을 더욱 사모하게 될 것이 아니라 이러한 신앙을 가진 분들은 어떻게 책임지는 성도의 삶을 살아야 할 것인지에 대한 분명한 의식을 갖게 될 것이다. 본문 중심의 강해식 강의와 더불어 주제별 강의를 통해 요한계시록의 내용을 분명하게 이해하게 될 것이다.

일어성경반

기독교 역사가 수백년이 되지만 아직도 기독교 인구가 1%에도 미치지 못하는 이웃나라 일본을 위한 선교 헌신자를 양육하는 과정으로 기본교리에서부터 성경 전반에 걸친 전도 방법을 일본어로 가르치고 배우는 과정이다.

자녀 양육의 지표 새롭게 깨달아

박 형 숙(권찰, 영아부 박씨네 어머니)



많은 부모들이 자신의 아이가 다른 어느 집의 아이들보다 더 똑똑하고 뛰는 아이기기를 바란다. 나 역시 마찬가지이다. 그래서 열심히 육아책도 읽고, 잡지에 난 여러 기사들도 오려 놓고, 동화도 들려주곤 했다.

그러나 이런 나의 인간적인 노력이 예수님 없이는 얼마나 허망한 것인가를 '구약에 나타난 예수님'이란 제목으로 진행된 영아부 거울성경학교에서 다시금 깨달아 알 수 있었다. 전도사님의 힘찬 말씀과 충현 유이원 원장님의 특강을 통해 어떻게 내 아이들이 양육할 것인가에 대해 큰 도움을 얻을 수 있었다. 이번 기회를 통해 아이들이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 속에 자라고 있음을 너무도 감사드린다. 나는 실수로 많았고 시행착오도 많았으나 하나님은 그렇지 않으시다. 나의 노력은 한시적이나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영원하시다. 이런 중요한 사실들을 다시금 깨달을 수 있도록 한 영아부의 거울성경학교에 참석하길 참 잘했다는 생각을 한다.

"엄마! 하나님은 참 좋다"

최 영 자(권찰, 유자부 김의 어머니)



거울성경학교를 마치고 돌아오면서 "오늘 무슨 말씀 들었어?라는 나의 질문에 '엄마! 밤에 걸린 허스기가 왕이 너무 불쌍했어. 양이 벽을 보고 막 울면서 하나님께 기도했어. 그랬더니 하나님이 낮게 해주시고 15년을 더 살게 해주셨어!'라면서 눈물 글썽이며 자작한 확인있게 대답하였다. "엄마! 우리는 모두 매일 기도 잘하니가 아프지도 않고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오래오래 살겠다. 그러면 좋겠지?" "와!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 사랑해서 우리를 영원히 살게 해주셨어! 너무 좋지?" "엄마! 하나님은 참 좋다. 정말 좋다."

우리의 확인에 큰 대답을 들으며 귀한 천국잔치를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린다.

예수 안에서 새 피조를 확인

중등2부 수련회 참가자



신생물의 권유에 마치 못해 참가하게 된 수련회. 그러나 여러 가지 프로그램과 부흥회 시간을 통하여 지금까지의 나의 생각이 크게 잘못되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어느날 학교에서의 일이 떠올랐다. 우리 학교는 불교 학교인데 도덕시간에 예수님의 생애에 대해 배운 적이 있다. 그때 나는 친구들에게 "너희들 예수 믿어라"고 몰아보았다. 그때 친구들은 "아니, 그러면 왜 믿어라"며 빈정거렸다. 나는 그때 친구들 앞에서 "예수님은 살아 계신다"고 용감하게 말하지 못했다. 나는 그것이 너무 후회스러웠다.

그러나 이번 수련회에 참가하여 내가 "예수님의 새 피조물"임을 확인했다. 이제 나는 용기있는 믿음을 가진 예수님의 제자로서 누구 앞에서든 당당하게 말할 수 있다. "예수님은 살아 계신다."

수련회 알기

이 단 비(중등3부)



오늘은 수련회 마지막 날이다. 마지막이라면 모든 것을 정리하고 싶은 마음이 든다. 개회예배, GBS, 공동체 훈련, 반별친교, 특강 등등 항상 있는 프로그램들이다. 하지만 나는 이 수련회를 통해 무엇을 얻었을까? 수련회 동안 또, 수련회가 끝나고 일생을 살아가면서 생각해야 하는 질문을 안 것 같다.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이제 수련회를 끝내고 일상생활로 가야 한다. 과연 나는 일상생활에서 이 질문을 하며 주님을 생각할 수 있을까?

하나님! 세상 속에 들어가더라도 항상 하나님을 생각하고 예수님이라면, 하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를 질문하고 기억할 수 있게 해주세요. 하나님께 합당한 자 되도록 주님의 손길로 인도해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

이 우 주(고등부)

새해를 맞으며 했던 다짐들과 다르게 분산되고 정리되지 않았던 마음을 주님이 받아 주시길 바랬다. 수련회는 이런 내 마음을 주님께 집중할 수 있는 기회였다. 내게 예수님이 필요했던 것이다. 삭제가 예수님을 만나게 된 마음을 들으면서 내 마음 속에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싶다는 갈망이 생겼다. 홀머 기도하며 마음을 그분께 집중했다. 수련회 기간동안 나 자신을 죽이는 것과 주님에 대한 갈망과 주님이 아니라는 내가 변할 수 없다는 믿음들을 내 마음에 담으셨다 '내가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나를 만나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했다. 너무너무 부끄럽고 부족하지만 내가 어쩔 수 없는 문제들도 그분만 만나면 된다는 확신이 나를 부끄럽게 했고, 더 낮아지게 했다.

내가 예수님을 좋아하면서도 확신이 없었던 것은 나 자신의 모습 때문이었다. 나와 세상적으로 관계되지 않은 아들을 사랑할 수 없는 모습이 너무 앞에서 나를 속기는 모습으로 나타났다. 그것을 때문에 나는 주님께 나아갈 수 없었는지도 모른다. 내가, 내 생각이 변화되지 않고는 자신있게 주님의 사람이라고 말할 수 없었다. 하지만 지금은 예수님께서 나를 변화시키게 하시니. 나의 마음이 나를 지배하고 있던 생각들이 변하고 있다. 나뿐만 아니라 주변 사람들도 변하고 있다. 나보다 더 나와의 만남을 원하시고 준비하신 예수님께 너무나 감사한다. 그리고 이제 자신있게 말할 수 있다. 나는 주님의 사람이라고...

일치와 화합을 위한 팀별수련회

정 회 경(청년1부)

3월 1일 가평, 기도원, 권박산 등지에서 청년1부 팀별 수련회가 은혜스럽게 진행되었다. 전체 집회, GBS에서 자칫 소홀해지기 쉬운 서로간의 깊은 교제가 강조되었고 모든 계획과 순서, 진행을 팀 자체에서 해결하기로 팀장, 조장들의 지도력을 강화하는 계기가 되었다. 그동안 전체 모임과 소그룹 모임 강화에 힘써서 청년1부는 이번 수련회를 계기로 좀더 체계 있고 역동적인 젊은이의 모습을 갖게 되었고 금년도 목표를 향해 힘차게 전진하게 될 것이다. 각자 청년 자신의 십자가를 지고 매일매일 하나님께 좀더 나아갈 수 있도록 노력하는 젊은이가 될 것을 다시 한번 다짐하는 계기가 되었다.

하나님 중심의 삶 다짐

김 공 희(청년2부)



2월 26일부터 27일까지 1박2일간 충현기도원에서 제30회 거울수련회를 '사랑하며 섬기는 청년'이란 주제로 개최하였다. 공동체훈련과 테마게임에서는 참성한 회원들간에 재미있는 게임과 연극을 통하여 사랑의 교제를 나눌 수 있었고, 특히 '크리스천의 세계관'이란 특강에서는 나 자신이 중심이 되는 삶이 아닌, 하나님 중심의 삶,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삶을 살아야겠다는 결심을 하는 소중한 시간이었다. 좀더 많은 청년들이 참석했으면 하는 아쉬움이 남지만 앞으로라도 청년2부에 하나님께서 주관하여 주셔서 더욱 많은 청년회원들이 모일 수 있을 것이란 희망을 가져 본다.

전도에 대한 자신감 심어준 성경학교

정 예 자(사랑부 교사)

'예수께서 가른 바'라는 주제로 거울성경학교가 하나님께 은혜 가운데 열렸다. 여러 가지 프로그램이 진행되었는데 각 프로그램마다 주는 메시지는 아주 강렬했다. 특히 '꽃의 향기'라는 인형극은 온전하지 못한 백합이 다른 꽃들을 염려하고 주위의 다른 친구들을 사랑할 줄 아는 착한 마음씨와 변함없이 하나님을 바라보도록 하신 하나님이 뽀은 꽃의 여왕이 되었다는 내용이었다. 마음에 착한 백합처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과 내 이웃을 사랑한다는 백합을 영화롭게 해 주신 것처럼 우리들도 영화롭게 해 주시리라.

그리고 전도를 주제로 한 연극에서는 과별로 전도하는 방법을 발표했는데, 어떤 과는 친절에서, 어떤 과는 배에서, 그리고 어떤 과는 꿈 속에서 등 참으로 다양한 아이디어가 있었다. 사랑부 학생들도 연극하는 과정에서 전도지를 힘있게 물린다든가 예수님에 대하여 다른 사람들에게 더듬더듬 설명하면서 전도에 대한 자신감과 예수 사랑하는 마음을 한층 더 배우게 되었다.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 나를 어떻게 드릴 것인가

장학생 선발을 위한 선교훈련 참가자

2월 26, 27일에 있었던 장학생 선발을 위한 선교훈련에 참석하면서 특히 기억에 남는 것이 전도훈련이다. 내 개조로 들어서 내 군대에서 전도를 한 것은 나에게 또다른 도전이었다. 복음을 전하고 전도했다는 것은 보이지 않는 영적 전투이기에 두려운 마음이 앞섰기 때문이다. 그러나 한 사람 한 사람 만나면서 용기있게 생기고, 복음을 전하는 기쁨이 솟아났다. 정말 내가 만난 대부분의 사람들은 예수님의 구원 사역에 대해 잘 알지 못했다. 이렇게 복음이 전파되지 않았다는 생각이 들어 하나님 앞에서 괴상한 마음이 들기도 하였다. 마지막 날 특강을 통해 하나님은 나를 위한 하나님이 아니라 나를 통한 하나님이 되라고 하셨다는 것도 깨달았다. 지난날 나 중심의 삶이 되어 나를 드리고 나를 높이기 했던 것을 하나님께 회개하며 이제 나보다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하여 나를 어떻게 드릴 것인지를 고민하며 살기로 했다. 나 중심이 아닌, 역사의 중심이신 하나님을 내 삶의 중심에 모시고 말이다.



오직 말씀으로 돌아가 은혜 충만, 성령 충만

김 정 근(집사, 에바다부, 청각장애인)

부서 특성에 맞는 새로운 방식으로 진행 달고 오묘한 말씀의 진수 깨닫게 하신 하나님

지난 2월 25-26일 양일간 은혜스럽게 치러진 수련회는 지금까지 경험했던 것과는 전혀 다른 스타일로 실시되었다. 성경말씀을 읽고, 이해하고, 적용하는 세 단계 과정의 성경공부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말씀 중심의 이러한 프로그램에 대해 비프로젝션 1대 컴퓨터 2대가 수련회 개최에바다부 폐회준비까지 활용되었다.

에바다부는 성경을 읽을 때 눈으로만 읽을 수 있고 다른 사람의 소리는 들을 수 없기 때문에 우선 '함께 읽기'가 중요한 과제였다. 이를 위해 수련회 한 달 전에 마태복을 5-7장을 모두 '와이프 포인트'로 디자인하여 충분한 연습을 한 후 수련회 때 시간표에 맞추어 사용하였다.

개회예배에는 마태복을 5장 1-12절 말씀을 읽고 강도사님이 설교하였으며 5장 13-16절은 각자 한 번씩 쓰고 읽기 작업을 하고, 17-48절은 6단락으로 나누어 각 단락을 조별로 읽고 내용을 연극으로 발표하는 형식으로 공부를 진행했다. 6장 1-8절과 14-15절을 읽을 때는 선생님들이 동화로 다시 한번 읽었으며 9-13절은 주기도문 암송대회로 진행되었다. 16-24절을 읽을 때는 금식, 재물, 몸의 등불 등의 제목으로 오라케인으로 진행되었다. 7장도 이와 비슷한 형식으로 성경공부가 진행되었다. 저녁 시간에는 5-7장의 내용에 대해

동화상을 이용하여 성경퀴즈를 진행하여 학생들의 반응이 좋았고 기억에도 오래 남게 되었다. 여기서는 '다이어트'가 있는 프로그램이 사용되었다. 7장 24-29절 말씀은 폐회예배 설교의 본문이었다. "비가 오고" "물 나며" "바람 부딪힐 때" 반석 위에 세운 집과 모래 위에 세운 집이 어떻게 다른지 영화를 보듯이 확실한 영상을 비프로젝션으로 보여 주었다.

이번 수련회는 비프로젝션이 청각장애인들의 사역에 얼마나 유용한 것인지 알게 해 주었다. 그러나 노트북 컴퓨터가 없어서 무거운 테스크탑과 모니터를 두개씩 들고 다니며 고생한 점이 해결되어야 할 아쉬움으로 남고, 교사들과 성인반 성도들 대부분이 직장 생활하는 관계로 많이 참석하지 못한 점이 또한 속죄로 남는다. 그러면서도 가게 문을 이룰씩이나 닫거나 IMF 시대에 그 어려운 휴가를 고스란히 에바다부 수련회에 바친 교사들 덕분에 새로운 수련회 프로그램이 참으로 은혜스럽게 잘 진행되었다. 특별히 바쁘신 중에도 위임목사님께서 에바다부 수련회에 오셔서 말씀해주시고 기도해주신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게 되었다.

듣지 못하는 장애인에게도 하나님의 달고 오묘한 말씀이 가슴에 깊이 새겨지게 하신 하나님의 크신 은혜에 감사할 따름이다.

홍·현·계·시·환

가난한 과부의 헌금이 우리의 헌금이 되기를 소원하며

가난한 과부가 바친 두 렘돈의 가치가 얼마나 되는지 정확하게 알 수 없지만 매우 적은 액수인 것만은 분명하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볼 때는 매우 귀중한 것이었다. 예수님께서서는 이 일을 두고 제자들을 받게 된다. 반면, 지극히 드문 경우이지만 여러 번 집고 구겨서 바쳐진 헌금이 있다고 하. 헌금은 순수하게 예배적 행위이며 금전적 생활을 통해서 구체적으로 바치는 신앙의 표시라고 생각된다.

회개부에서 수년간 봉사하며 성도들이 드린 헌금주머니와 헌금을 계속하다 보면 액수의 많고 적음을 떠나 깨끗한 지폐만을 골라 드린 헌금을 보면서 계속하는 봉사자의 마음으로도 그 성정에 감동을 받게 된다. 반면, 지극히 드문 경우이지만 여러 번 집고 구겨서 바쳐진 헌금이 있다고 하. 헌금은 순수하게 예배적 행위이며 금전적 생활을 통해서 구체적으로 바치는 신앙의 표시라고 생각된다.

어릴 적 들은 이야기로 옛 성도들 중에는 세 지폐가 없으면 수채다미로 퍼서 드릴 정도로 정성껏 마음을 다해 헌금을 드리기에도 하. 헌금은 하나님의 구속으로 정결케 된 자들이 감사와 기쁨의 마음으로 하나님을 향해 마음을 열어보이는 신성한 신앙행위라 생각된다. 우리들의 신앙이 생활의 모든를 바칠 만한 것이라면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진 수입 중에서 가장 귀한 것으로 헌금하는 모습을 보시는 하나님께서는 얼마나 기뻐 받으실까.

송 두 섭(집사, 회개부, 7교구)

지체들 소식

유아부 겨울성경학교

유아부는 지난 2월 25일, 26일 '예수님과 함께'라는 주제로 겨울성경학교를 가졌다. 좋은 날씨, 선생님들의 적극적인 참여, 어머니들의 도우심, 어린이들의 즐거운 모습,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모두 하나가 되어 은혜스럽고도 보람있는 이틀이었다. 전도사님의 특강, 놀이, 성경이야기, 동극, 간식, 선물까지 모두가 어린이들의 성장과정에서 중요한 추억이 될 것이다. (임미은 통신원)

유년부 "경건의 시간" 중요성 깨우침 교구 특강

2월 21일 교사양성에서는 이승수 목사님을 강사로 '교사 양성훈련'에 관한 교구특강을 실시하였다. 이번 특강을 통하여 교사들은 규칙적인 말씀공부(QT)의 중요성과 필요성, 구체적인 말씀묵상 방법을 상세히 배울 수 있었다. 특히 영적 수련된 교사가 먼저 철저하게 깨어있어 거듭나서 주님을 만난 제물이 되어야 비로소 이런 영혼을 바르게 교육할 수 있다는 강의는 교사들에게 그 동안의 교육방법을 뒤돌아 보게 하는 계기가 되었다. 이에 교사들은 이번 특강을 통하여 '경건의 시간'을 좀더 체계적으로 실천하여 하나님께 바르게 알고 가고 성령의 인도에 따라 성숙된 교사가 되어, 훌륭한 한국교회를 길러내는

진정한 영적 수습이 되기를 굳게 다짐하였다. (윤숙희 통신원)

중등1부 부모님과 함께한 하루



지난 2월 28일에는 학부초 초청기도회를 가졌다. 평소에는 다들 친구들을 만나고 인사하느라 정신 없었지만 이날은 정말 즐겁고 경건하게 예배드렸다. 107명의 학부초님들이 참석하신 가운데, 강도사님의 우리의 마음이 정말 주님께 드러져야 한다는 말씀과, 장로님의 날카로운 중언과 1학년으로서 가야 할 태도와 상담 선생님의 열린 상담의 말씀으로 정말 은혜가 느껴졌다. 학부초님들의 따사로운 관심을 감사드린다. (김영희 통신원)

1교구

가장 귀한 유산은 믿음의 유산

안락의 투병 중에서도 조용히 믿음을 지키며 인내하시던 집사님의 발원예배 후 특별사서자가 있었다. 주님을 알지 못했던 아들이 장예배를 통하여 마음

문을 열고 주님을 믿기로 작정하고, 생전에 어머니가 쓰시던 성경책을 전달받은 것이다. 이 세상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주의 사랑이, 주님의 말씀을 받고 충언동산을 받았던 그 아들의 일생에, 30년, 60년, 100년의 결실로 넘치리라. 믿음의 유산을 받은 그 아들에게 우리 모두 격려의 박수를 보낸다. (임영태 통신원)

3교구

서로를 섬기자

교구 모임이 남산산성에서 열렸다. 이준경 목사님의 '좋은 소식(복음)'이라는 설교 말씀으로 은혜를 나눴다. '빛'의 진리의 섬김으로 복음을 전하자'를 외치고는 3교구로 금년 한해 뜨거워질 것 같다. 성경통신을 통해 구역식구들간에 성경읽기가 확산되어가며 남산도 모임이 고소금 지역장님이 주축이 되어 할 발하게 이어지고 있으니 올 한해에 또 믿음의 기대로 좋은 것이다. 3교구의 부흥을 위해 통성기도의 소리는 남산산성을 메아리쳐 울렸다. 올 한해 3교구 사모를 섬기며 복음을 나눠주는 그리스도의 향기를 내뿜는 협찬 일꾼들이 되길 바란다.

14교구

금요집회 찬양 앞두고 정성 다해 연습

"주의 사랑 비릴 때에 기쁨 오네" 장

만수 집사님이 지도하는 가운데 교구모임 장소에 교구원들의 찬양연습 열기가 가득했다. 우리 14교구가 5월 중 금요찬양집회때 찬양을 드리고자 되어 있어 연습에 들어간 것이다. 우리 찬양대! 실력면에서는 조금 부족할지라도 마음과 정성만은 어느 찬양대 못지않으리라. 교구의 많은 식구들이 한 마음으로 동참하여 정성을 다하여서 회개의 마음, 결심의 마음, 감사의 마음, 헌신의 마음을 담아 주님께서 흠양하길 소망하는 찬양을 드릴 수 있기를 기대해 본다. (이애나 통신원)

15교구

3월은 지역별 찬양 부르기 달

지역별 찬양이 3월 중에 있을 예정이다. 3월 첫째주일은 1지역, 둘째주일은 2지역, 셋째주일은 3지역, 넷째주일은 4지역으로 정해졌다. 첫째주일을 담당한 1지역 식구들의 찬양연습이 아름답게 화음을 이루어 다듬어지기를 바란다. 지난 주일에는 2지역 식구들도 찬양 연습에 가세를 해서 교구모임 후 교육관 212호까지 피아노를 비롯한 악기소리, 찬양을 지휘하는 집사님들의 소리들로 가득하다. 찬양은 언제나 그렇듯이 지역 식구들을 하나둘씩 하고 있다. 좀더 잘 하려고 열심인 모습들이 뚜렷 아름답다. 모두 즐겁고 기쁜 모습들이다. (한숙정 통신원)

교회소식 / 이변엔 고집시다

● 알 림

1. 삼천식 / 오늘 I, II, III, IV, V 부예배시에 거행됩니다.
2. 이·미용전도회 안내 / 이·미용 기술을 가진 성도님들의 많은 참여바랍니다. 문의: 김순선 집사(564-0549)

● 모 임

1. 장기담회 / 10월(수) 2010, 당회실
2. 장로 회오세백기도회 / 9월(화) 새벽기도회 후, 교육관 109호
3. 안수집사회 월오세백기도회 / 8월(월) 새벽기도회 후, 교육관 109호
4. 주일오후기도회 / 오늘 15:00, 갈릴리움
5. 감사위원회 월례회 / 오늘 15:30, 선교관 404호
6. 남녀전도부 연합회장 월례회 / 오늘 15:00, 칼빈홀 (참석 대상: 남녀전도부 연합회장, 부회장)
7. 경찰전도회 임원회의 / 14일(다움요일) 15:00, 경찰전도회실
8. 교정전도회 월례회 / 오늘 주일오후기도회 후, 갈릴리움
9. 실업인전도회 목요기도회 / 11일(목) 새벽기도회 후, 실업인전도회실
10. 안수집사회 월례회 / 오늘 15:30, 교육관 212호
11. 권사회 제1지회 월례회 / 10월(수) 1 부예배 후, 사랑부실

● 남녀전도회

1. 베드로 9 / 11월(목) 19:30, 가문술밭(434-9312)

2. 베드로16 / 오늘 교구모임 후, 영아부실

3. 마리아 1 / 9월(화) 10:30, 사랑부실

4. 마리아 4 / 9월(화) 10:30, 김순애 회장택

● 결 혼

1. 김보룡 군(김경식 집사, 강석만 권사의 아들, 14교구)과 강윤경 양(강창원 성도, 정관순 성도의 딸) / 9월(화) 12:30, 갈릴리움
2. 오윤민 군(오봉식 집사, 장희수 집사의 아들, 16교구)과 공경미 양(공경수 씨, 전귀순 집사의 딸) / 13일(토) 13:00, 갈릴리움
3. 우재만 군(우기전 장로, 정민자 권사의 아들, 8교구)과 천현주 양(천철승 성도, 박근순 성도의 딸) / 13일(토) 14:00 부산 늘봄관광호텔 예약장 9층

● 별 세

1. 남정현 성도(남은희, 남일홍 집사 부친, 송효종 집사 장인, 정영자 집사 시부, 10교구 상계7구역) / 2월 17일 별세, 19일 장례
2. 신득진 성도(임순이 성도 남편, 6교구 가락미동2구역) / 2월 25일 별세, 27일 장례
3. 김경희 권사(김은희의 권사 모친, 김현재 장로 장모, 1교구 국기2구역) / 2월 27일 별세, 3월 2일 장례

충헌 중보의 창

① 김창민 원로목사와 김성관 위임 목사께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성령의 능력과 말씀의 은사를 주시며 모든 교역자들과 당회원들이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함께 세워가게 하소서.

② 오늘 거행되는 성찬식이 회개와 감사와 결단의 시간이 되게 하소서.

③ 성경연구원과 선교연구원, 전도훈련원 등 99년도 전반기 교육훈련원의 각 과정에서 많은 성도들이 참여하여 말씀으로 성숙해지는 은사를 허락하소서.

④ 8월(일)~10월(수)에 실시되는 교역자 수련회를 통해 교역자들이 복을 안에서 영육이 새 힘을 얻어 많은 사역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게 하소서.

⑤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인정받는 99년도 전반기 충헌 소식강학생들을 선발하여 주님의 선하신 뜻에 따라 천국입문로를 양성하게 하소서.

⑥ 3월 28일에 있는 장로, 집사, 권사 선거에서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일꾼들이 선별되도록 인도하소서.

⑦ 세계 각지에 흩어져 사역하는 선교사들의 헌신을 통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이 풍성한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은사를 허락하소서.

새가족을 환영합니다

번호	성명	교구	소속부서	인도자	번호	성명	교구	소속부서	인도자	번호	성명	교구	소속부서	인도자
289	박희운	4	청년2부	이영선(19)	297	김재경	19	대학부	한현수(19)	305	성은경	19	청년1부	윤순희(11)
290	김도영	6	고등부	이은경(6)	298	김시원	19	대학부		306	김이진	19	청년1부	장정숙(3)
291	김대환	8	청년2부		299	이지영	19	대학부		307	김한결	19	대학부	장정숙(3)
292	안숙자	12	루디아	안정선(12)	300	송지원	19	청년1부	최호일(15)	308	박수란	19	대학부	
293	황정식	13	베드로	이보희(13)	301	서동환	19	청년1부		309	최미연	19	고등부	추희은(4)
294	최영순	15	루디아	김지혜(19)	302	김성열	12	청년1부	송은희(6)	310	손재석	19	고등부	
295	오동관	17	바울		303	김봉성	19	청년1부	김우형(7)					
296	박재현	17	청년2부	홍현희(14)	304	조동일	19	청년2부	홍해선(11)					

※충헌교회의 한 가족이 되기를 원하시는 분은 본당 203호 새가족 등록실로 오시기 바랍니다.

이변엔 고집시다

빌려간 성경, 찬송 제자리에 듭시다!

본당 안으로 들어가다 보면 로비 우편에 안내장이 있고, 그 자리에는 방문객이나 성경, 찬송을 가져오지 않은 성도들에게 잠시 빌려 주기 위한 성경, 찬송들이 구비되어 있다. 그런데 작년 말 예배위원회에서 준비해 놓은 성경 찬송 합본 150여권이 현재는 10여권밖에 남아 있지 않다. 이유인즉, 각 부서와 기관에서 임의로 급히 빌려간 후에 다시 갖가지 않았기 때문이다.

우자들은 "모든 사람의 것은 누구의 것도 아니다"라는 의식에 사로잡혀 있다. 그래서 자기 부서나 기관에서 어떤 물품이 필요할 때에는 다급하게 찾지만, 소고난 후에는 아무 곳이나 방치해 두는 악한(!!) 버릇을 쉽게 고치지 못한다. 쓸 때에는 자기 소유를 주장하지

만, 쓰고난 후 관리 문제가 생기면 타 부서에게 미루고 한다.

주일이 지난 후 교육관 곳곳에 버려져 있는 주보와 여러 순서지들, 제자리를 찾지 못해 이곳 저곳에서 방치되고 있는 수많은 문구용품들, 심지어 마이 크까지! 이제는 고쳐야 한다. 교회의 모든 물품을 하나님께 바치진 하나님의 것임을 기억하고 내 것 이상으로 아낄 수 있어야 한다. 복음에 합당한 삶은 바로 이 작은 구체적인 일상의 생활에서 서부터 시작되는 것이다.



3월 14일 예배 전 찬양곡목 및 연주자

◆ 2부예배

- ◆ 소프라노 정동숙 (임미누엘찬양대 솔로리스트) (찬양곡목)
- 너희 마음에 슬픔이 가득차도
- 나의 주의 도을 받고자
- 내 영혼의 그윽히 깊은 데서
- 오 신실하신 주

◆ 3부예배

- ◆ 소프라노 최진사 (임미누엘찬양대 솔로리스트) (찬양곡목)
- 참 아름다워라 · 거룩하신 주
-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 4부예배

- ◆ 임연찬양대 솔로리스트들 (찬양곡목)
-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 행할인가 날 위하여
- 주 날에 밀 내가 편안히 쉬네
- 큰 죄에 빠진 나를
- 생함과 같은 보혈

◆ 5부예배

- ◆ 소프라노 이하나 (고등부찬양대 솔로리스트) (찬양곡목)
- 시편 8편 · 참 아름다워라
- 주 이름 부를 때 · 내 주를 만나
- 주님의 살과 흘리신 피

■ 원로목사

김창민

■ 위임목사

김성관

■ 부목사

이홍성 김희수 이종태 박경환 김동석 김필수 권형준 김재철 이송수 정갑진 정현민 조복관 조원수 김동하 차병관 김병태 김진식 권상현 서광진 이승학 정해성 박도원 이준경

■ 협동목사

윤영택 박형용 노봉민

■ 선교사

이준근 안석열 김영태

■ 간도사

박인기 염연일

■ 원로전도사

이두란 최순복

■ 여전도사

정영민 현정남 장영자 임태주 김정자 배옥민 최희재 손미희 송향자 신동자 윤인숙 오정숙 오인숙 김옥윤 한영문 박종하 김명숙 김복순 최영남 김연식

■ 교정전도사

박양덕

■ 교육전도사

한승일 김영기 송원식 김창중 조재민 허용구 김병수 이종태 김윤식 김일숙

■ 신교전도사

정은희 박대연 이석현

■ 평신전도사

유병세 김형선 이기성 김철영 고은빈 허요셉 강기림